

저출산 · 고령화 현상에 대한 조사 보고서



2006. 2. 17

엠브레인
리서치 1사업부

조사 개요

조사 설계

1) 자료 수집 방법

-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On-line Survey
: 엠브레인 패널 DB에서 추출된 적격 응답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온라인 설문지에 의한 자료수집

2) 조사 대상

- 만 20세 이상 남·녀
- 본인 또는 가족 중 광고 대행사 및 시장조사 관련업체, 컨설팅 회사, 기타 관련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자

3) 표본추출 방법

-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법(Purposive Quota Sampling)

4) 표본 구성 및 크기 : 300명 (신뢰도 : 95% ±5.66%)

	20대	30대	40대	50대 이상	TOTAL
남자	43	37	31	37	148
여자	41	36	33	42	152
TOTAL	84	73	64	79	3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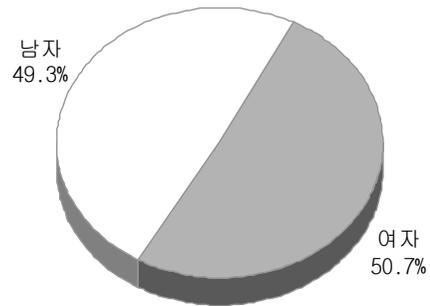
5) 조사 기간

- 2006년 2월 2일 ~ 2월 4일까지 (3일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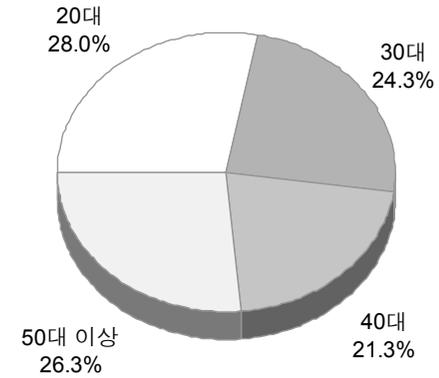
조사 개요

응답자 특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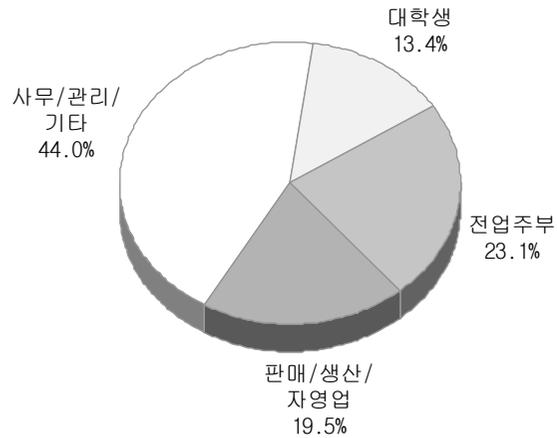
성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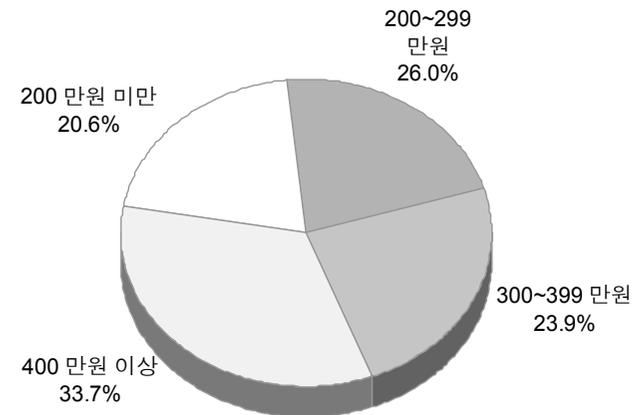
연령



직업



가계 소득 수준



주요 조사 결과 요약

1. '저출산·고령화' 현상에 대한 일반적 ISSUE 인식

2. '저출산·고령화' 현상에 대한 구체적 ISSUE 인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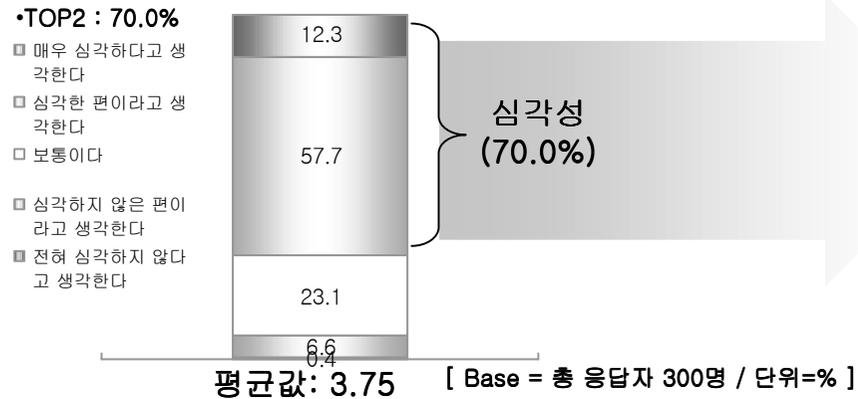
3. '저출산·고령화' 정책에 대한 수용도

4. 세부 정책에 대한 수용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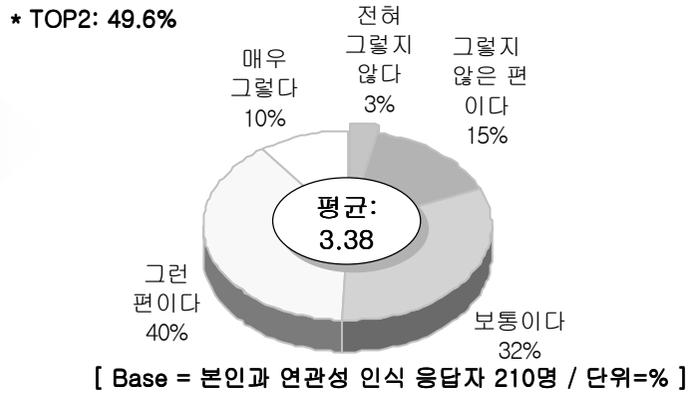
1.1 '저출산 · 고령화' 현상에 대한 인식

-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에 대한 심각성 인식은 각각 70%, 80%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
- 반면, 해당 이슈에 대한 본인과 의 연관성은 고령화(81.0%)가 저출산(49.6%)에 비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안에 따라 상대적인 반응을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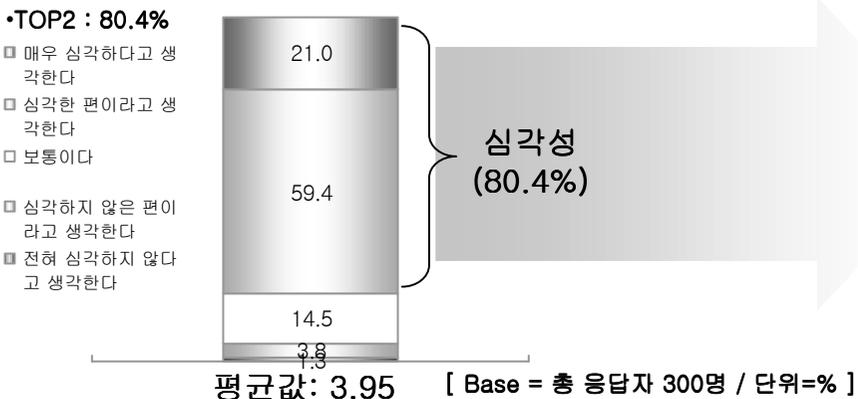
'저출산' 현상에 대한 인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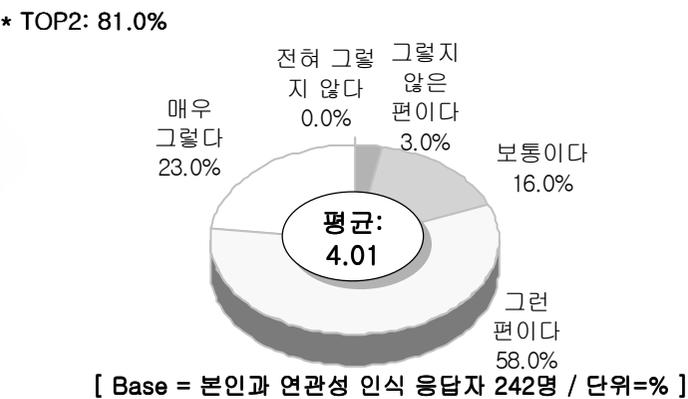
'저출산' 현상과 본인 연관성



'고령화' 현상에 대한 인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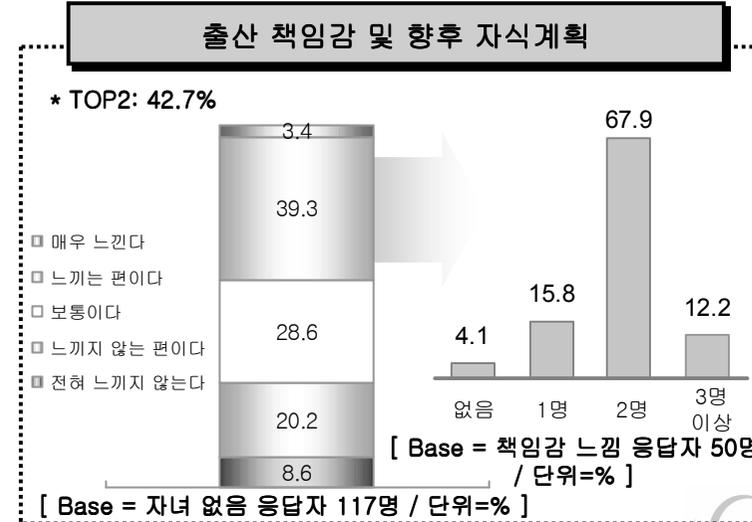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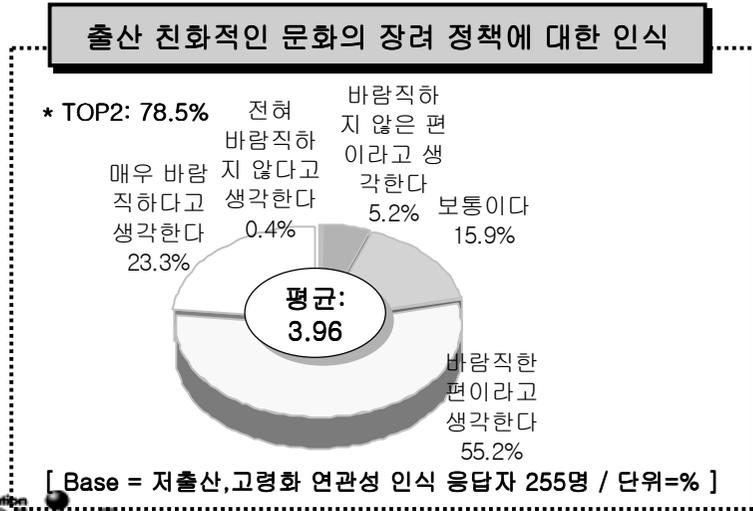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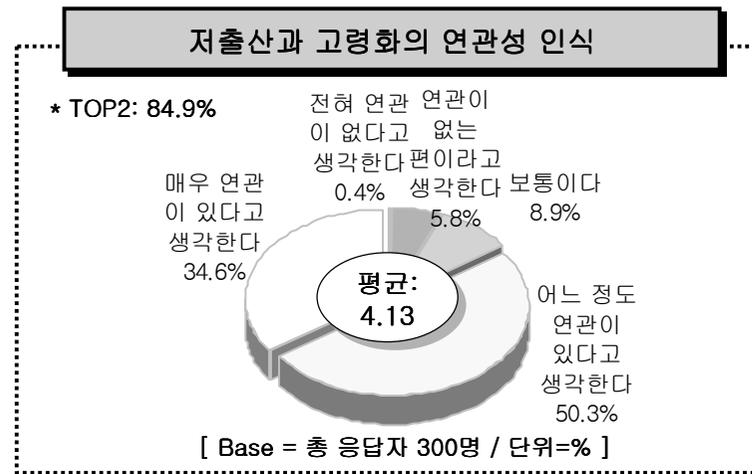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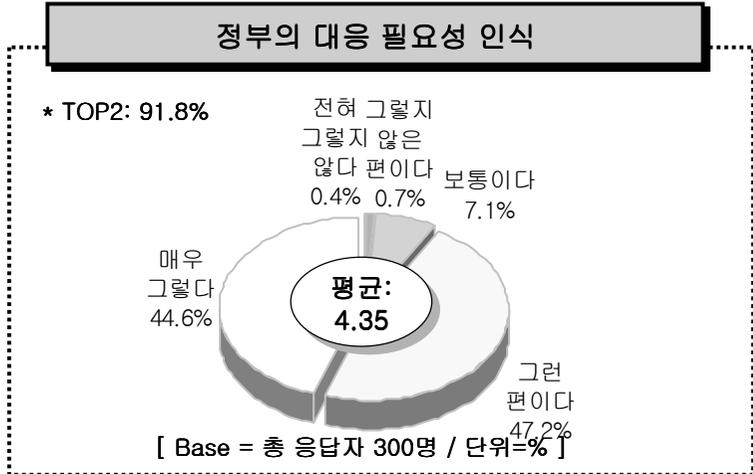


'고령화' 현상과 본인 연관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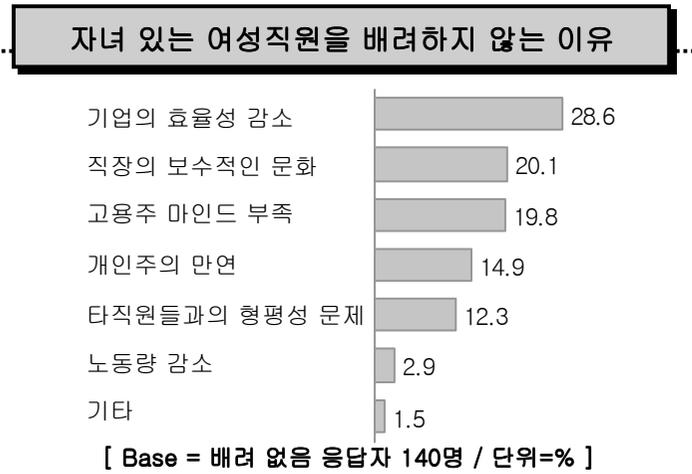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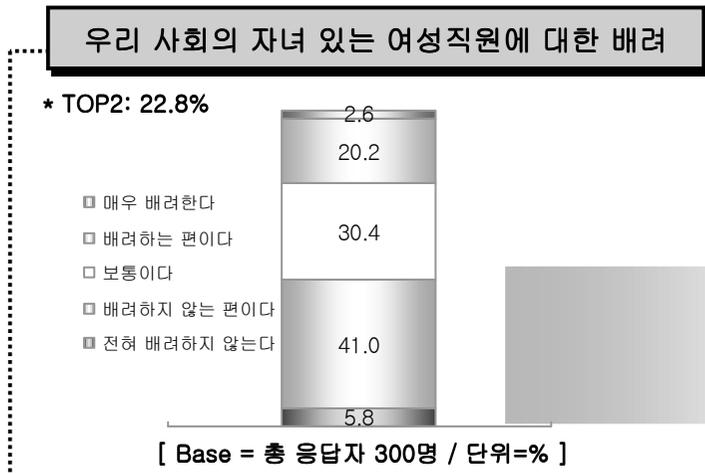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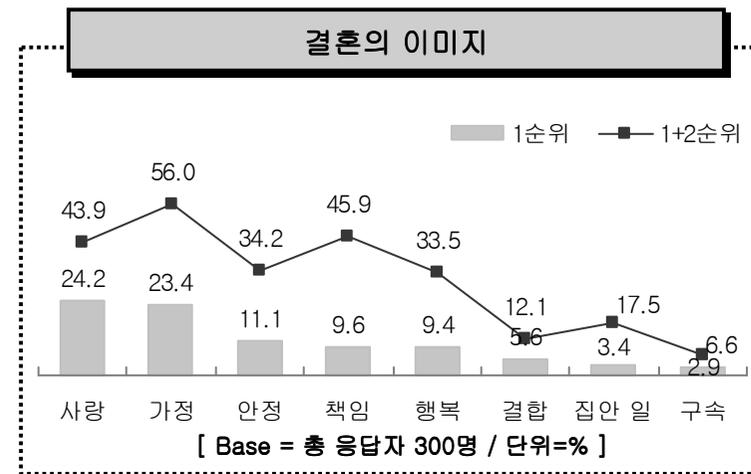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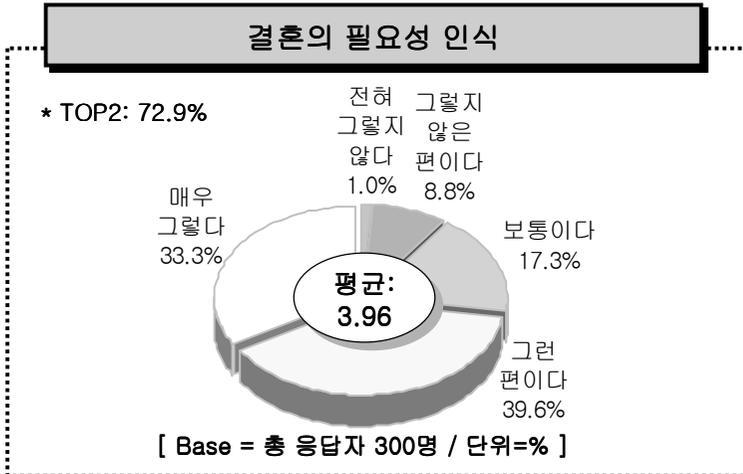
1.2 정부 대응 필요성 및 연관성 / 출산 책임감 인식

- 정부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으며, 저출산과 고령화의 연관성 또한 약 85%가 인식하고 있음
- 정부의 출산 친화적 문화 장려 정책에 대해 약 79%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, 미혼 남녀 및 기혼자 중 자녀가 없는 사람 중 약 43%가 출산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, 이들은 향후 2명의 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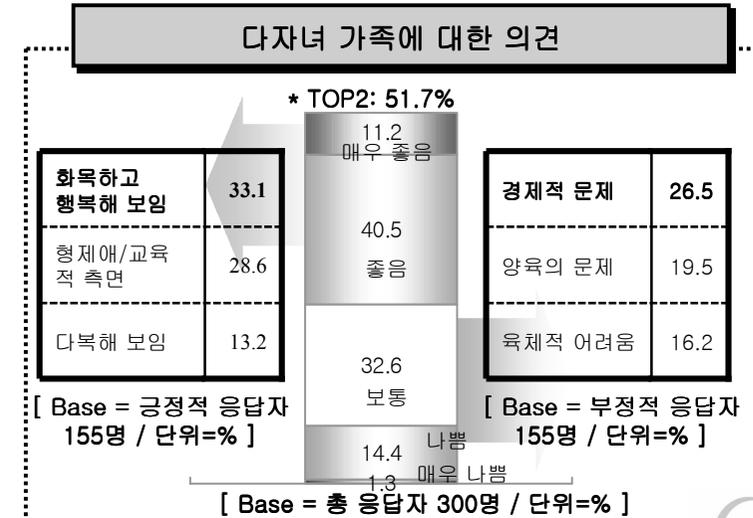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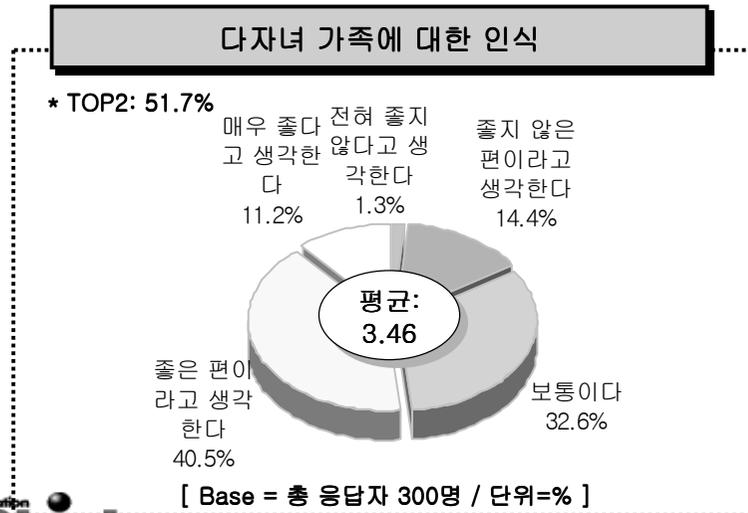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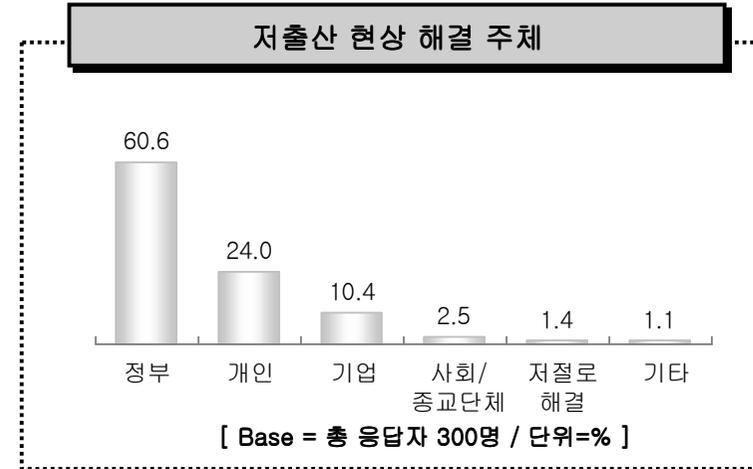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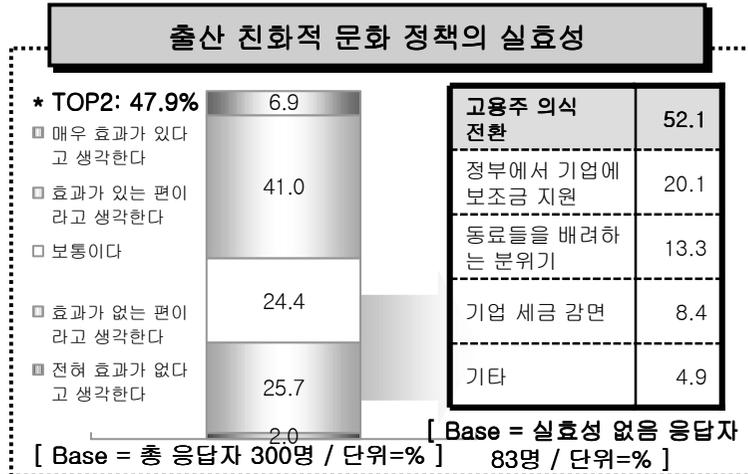
2.1 결혼의 필요성 및 이미지 / 자녀 있는 여성 직원에 대한 배려 정도

-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약 73%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, 그에 대한 이미지는 사랑, 가정, 안정 등 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연상하고 있음
- 우리 사회가 자녀 있는 여성직원을 배려한다는 응답은 약 23%에 불과했으며, 배려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기업의 효율성 감소인 것으로 나타남



2.2 출산 친화적 정책의 실효성 및 해결 주체 / 다자녀 가족에 대한 인식

- 정부의 출산 친화적 문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약 48%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, 정책 실효성을 위해서는 고용주의 의식 전환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주된 해결 주체를 정부로 인식하고 있음
- 다자녀 가족에 대한 인식은 약 52%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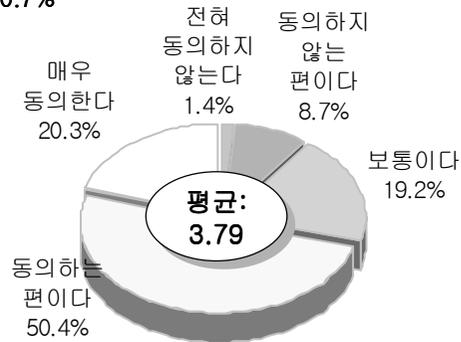


2.3 남녀 간 바람직한 가사 및 육아 부담 / 정부 메시지에 대한 인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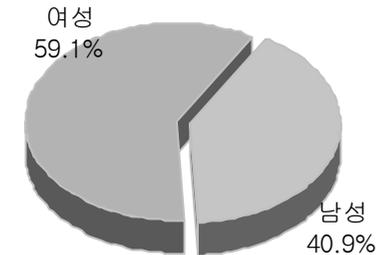
-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 및 정부의 양성 평등 메시지에 대해 약 70% 정도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, 노후에 대한 불안감(73%)도 상당히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남 · 녀의 가족 내 바람직한 가사 및 육아 부담은 남성 4 : 여성 6의 비율로 응답됨

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 인식

* TOP2: 70.7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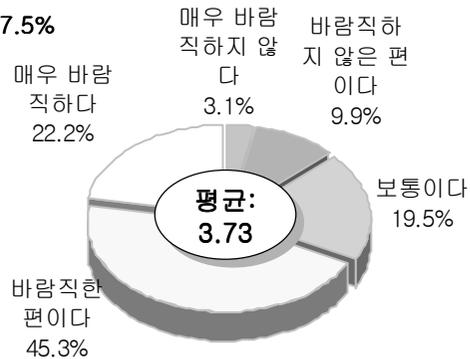


가족 내 바람직한 가사 및 육아 부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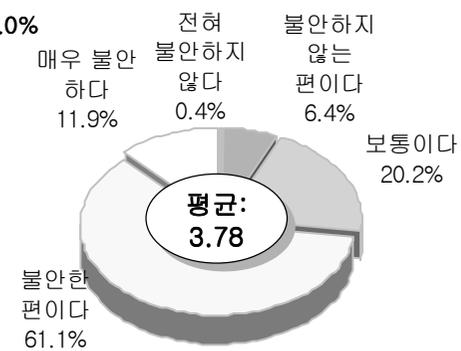
정부의 양성평등 메시지에 대한 인식

* TOP2: 67.5%



노년층에 대한 불안감 정도

* TOP2: 73.0%



2.4 노후 불안감 및 해소 방안 / 노년층의 경제활동에 대한 인식

- 경제적 문제가 노후 불안감의 주된 이유이며, 이의 해소를 위해 정부가 재취업/재교육 기회 부여, 노인복지 서비스 확대 등의 지원을 해주기를 기대함
- 노년층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해 대부분(91.2%)이 긍정적으로 인식함

노후 불안감의 주된 이유

- 경제적 문제
- 노환및 질병
- 심리적 소외/고독감
- 무료함
- 기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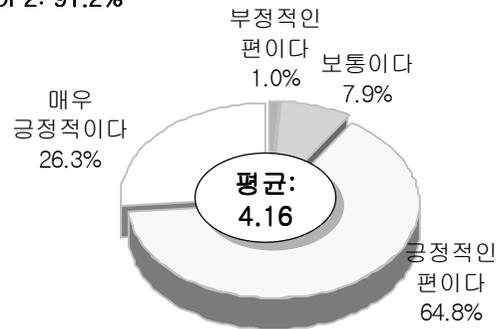
노후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부에 바라는 점

- 재취업/재교육 기회
- 노인복지서비스 확대
- 노인 여가문화활동 지원
- 노인건강 치료서비스 확대
- 노인 존중문화 확산
- 기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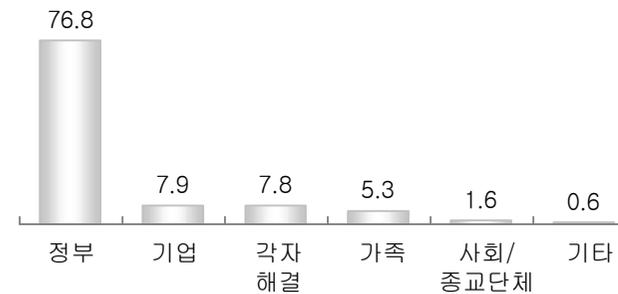


노년층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인식

* TOP2: 91.2%



고령화 현상의 해결 주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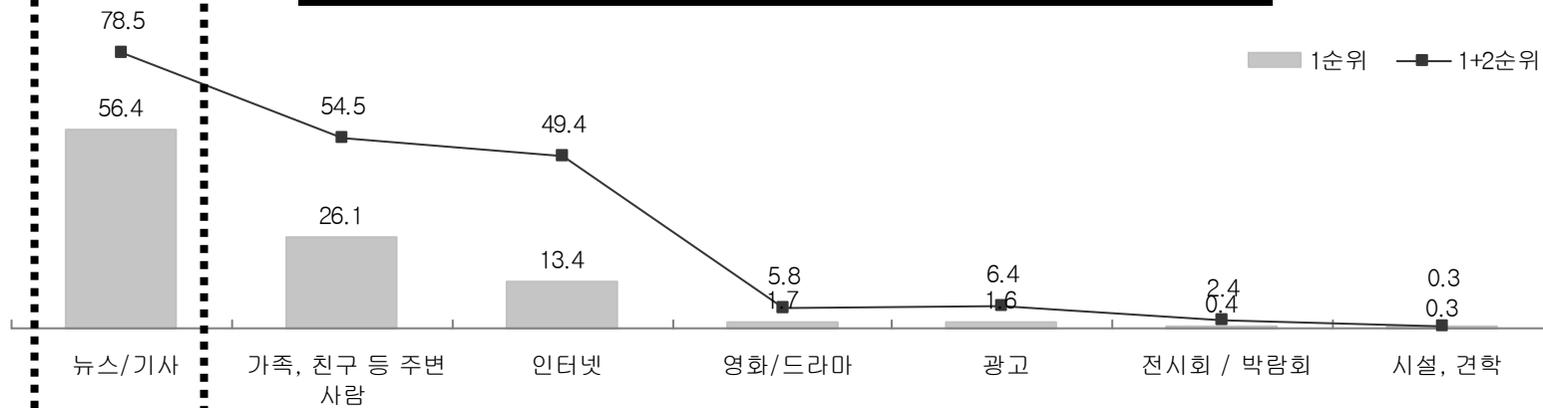


[Base = 총 응답자 300명 / 단위=%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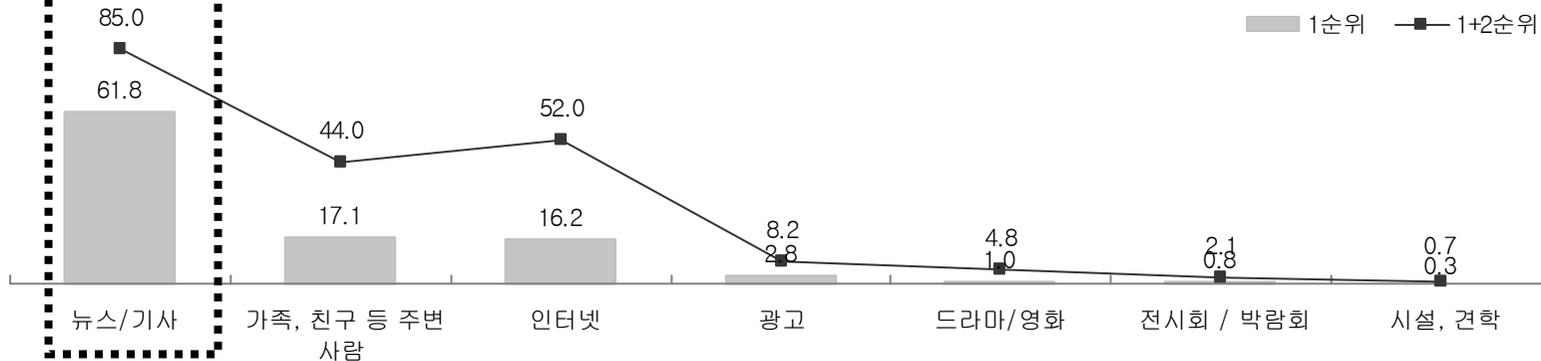
2.5 결혼 · 자녀출산 · 노후 정보 취득 Channel

- 결혼 및 자녀 출산, 노후에 대한 주요 정보 취득원으로 뉴스/기사 등 Mass Media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

결혼 및 자녀 출산에 대한 정보 Channel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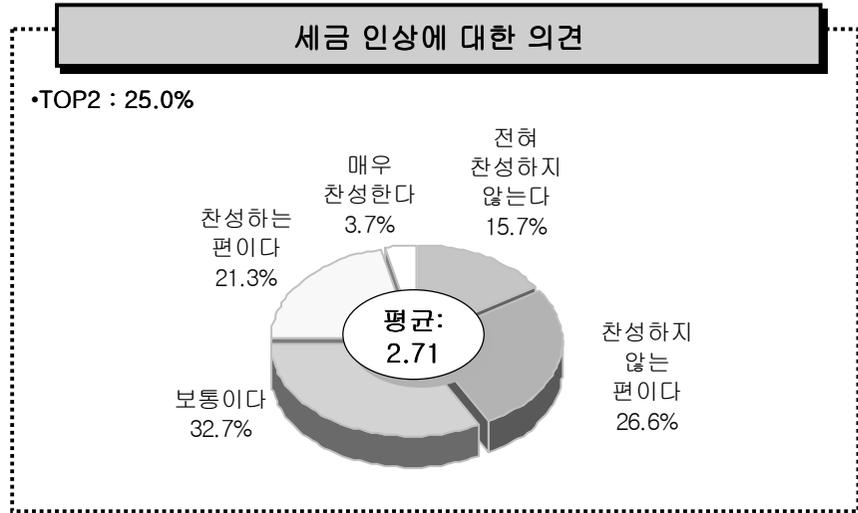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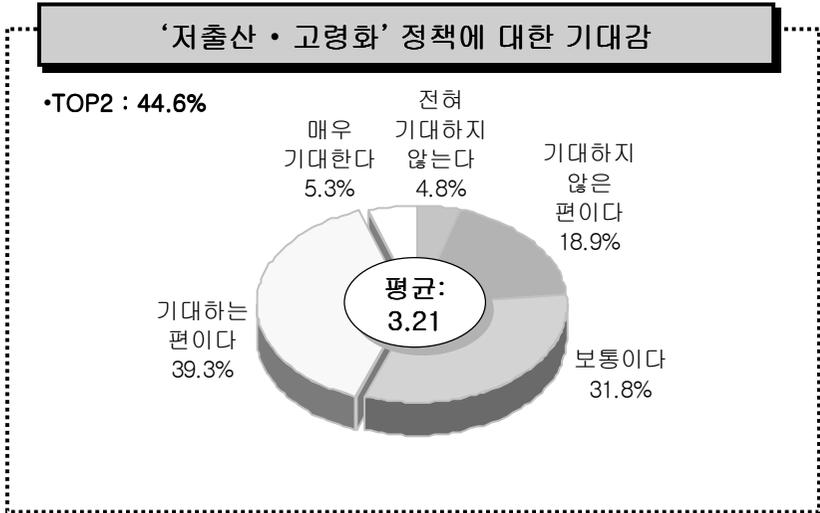
노후에 대한 정보 Channel



[Base = 총 응답자 300명 / 단위=%]

3.1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및 세금 인상에 대한 의견

- 저출산·고령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약 45% 정도로 나타남
- 반면, 관련 정책 시행을 위한 자원마련을 위해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에 대한 동의는 25%로 낮게 나타났음



3.2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 및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항

- 정부의 최근 저출산·고령화 정책에 대해 과반수 이상이 관심을 보임
-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주요한 방편으로 실업 등 경제적 어려움 해결, 보육료 등 양육에 대한 지원 확대, 사회적 인프라 구축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

정부의 최근 '저출산·고령화' 정책에 대한 의견

•TOP2 : 55.1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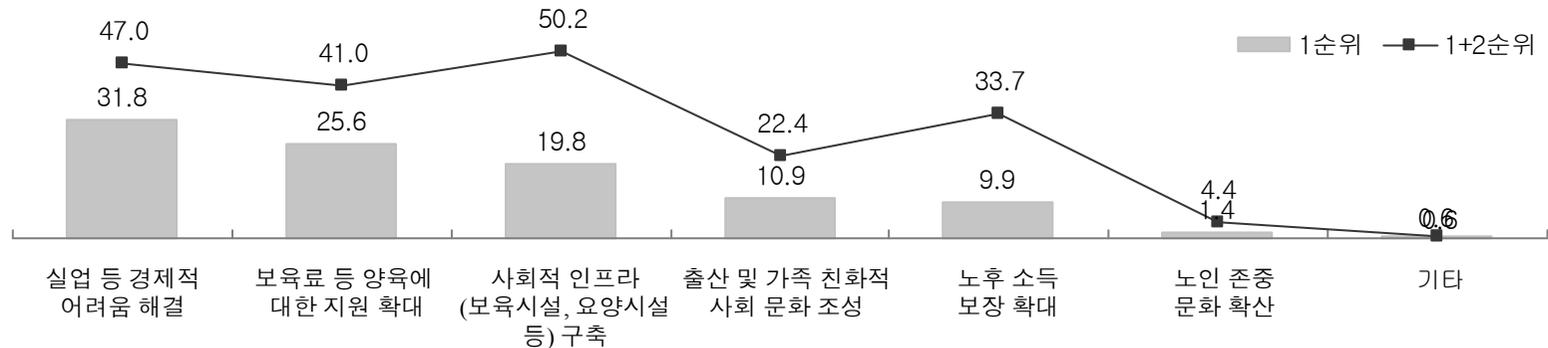
매우
관심이
있다
7.6%

전혀
관심이
없다
0.4%

관심이
없는
편이다
8.8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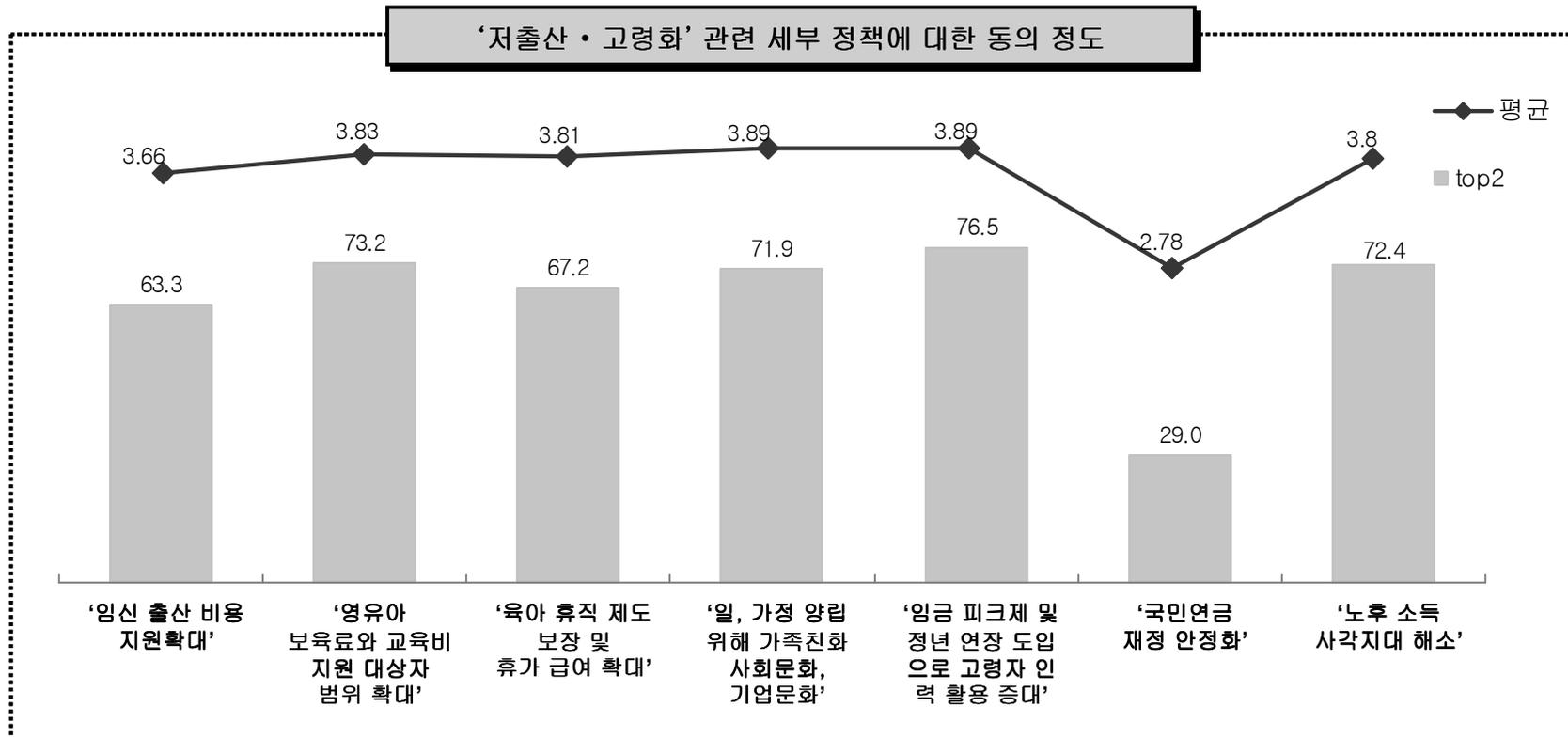


'저출산·고령화'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



4.1 세부 정부 정책에 대한 수용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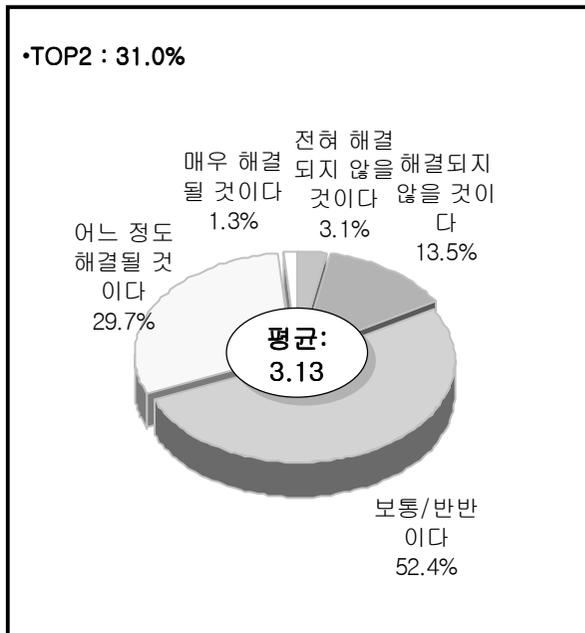
- 저출산·고령화 관련 세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‘임금 피크제 및 정년 연장’, ‘영유아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’, ‘노후 소득 사각지대 해소’ 등 주로 직접적 수혜 관련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높았음
- 반면, 개인별 부담 증가를 전제로 한 ‘국민연금 재정 안정화’에 대한 수용도는 낮게 나타남



4.2 ‘저출산·고령화’ 정부정책 시행에 따른 문제 해결 정도 및 자녀출산 의향

- ‘저출산·고령화’에 대한 정부 정책 시행에 따른 문제해결 정도에 대해 약 31%가 해결될 것이라고 응답했음
- 정부의 경제적 지원에 따라 자녀를 더 낳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약 30% 정도가 찬성하였음

‘저출산·고령화’ 정부정책 시행에 따른 문제해결 정도



정부의 경제적 지원에 따른 자녀출산 의향

